

# “한국 전통문화 세계화·작품으로 사회적 소통 꿈꾸는” 이 예 린

Y DANCE Company 프로듀서

글 이봉현 (lbheon@naver.com)

Y DANCE Company가 지난 3월 2-3일 강남 맥아트 스튜디오, 24일 서소문 W Stage에서 'Mixed Cultural Moving Body'를 개최하였다. 영국과 한국에서 워크샵, 무용공연, 댄스필름, 스크린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예린 프로듀서와 인터뷰를 가졌다.

## 안녕하세요. 독자들에게 이예린 씨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결합한 이른바 코리안 컨템포러리 댄스(Korean Contemporary Dance)를 선보이는 Y DANCE Company 프로듀서로서 무용수와 필름메이커, 무용학 연구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고, 경희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에서 석사과정을, 현재는 로햄튼 대학교 (University of Roehampton)에서 무용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 영국과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2016년 런던으로 건너와 예술창업과 관련된 Creative and Cultural Entrepreneurship 과정 중, 무용수로서의 활동을 위해 Y DANCE Company를 창단 2017년 3월에 공연을 가졌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한국에서 활동이 용이하지 않지만 다행히 Y DANCE의 협력 단체인 '오프밸런스 (OFF BALANCE)'와 '언엔딩(UNENDING)' 기획사의 도움을 받아 매년 저희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밸런스'의 신진 아티스트기획전에 매년 참여하여 올해 4월부터는 무용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Y Dance Company의 구성원들이 궁금하군요.

사회에서 대두되는 이슈들을 Y DANCE만의 생각과 표현 방식으로 풀어내는 댄스 프로젝트 팀으로써 주요 구성원들은 현재 런던에서 문화, 예술, 무용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입니다. 때로는 작업에 맞춰 음악 작곡이나 무대 디자인 그리고 참여하는 무용수들은 한국, 중국, 영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 분야는 무엇인가요?

주기적으로 런던에서 무용 페스티벌, 아트 페스티벌, 전시 오픈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댄스필름 또한 Y DANCE에서 하는 부분이 크지만, 제 박사과정의 연구 주제가 스크린댄스(Screen Dance) 및 댄스필름(Dance Film)과 연계성이 커 개인적으로도 다른 무용수들과의 콜라보 영상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그 동안 선보인 작품들은?

《In Wonderland》, 《뉘: Soul》, 《Meden agan》, 《Nothing in excess》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저희가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느껴온 사회 각각의 모습들과 그 속에서 대두되었던 이슈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상과 현실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 댄스필름은 작품과 어떤 연계성을 지니고 있나요?

작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 작품을 선보인 후에는 6개월~1년의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재창작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작과 댄스필름 등의 많은 요소들을 공유하게 되죠. 예를 들면 <넛:Soul>은 6분의 댄스필름이 첫 시작이었고 이것이 발전되어 10분, 또 30분의 작품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활동범위가 확장되면서 공연과 필름, 개별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과 영국의 활동내용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관객이 다르다보니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영국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한국 관객 분들에게 전하고, 영국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컨셉을 소개하고자 한국의 언어나 전통 음악, 춤 등을 담아 공연을 합니다. 한국과 영국 모두 코리안 컨템포러리 댄스를 선보인다는 점은 같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한국적인 것과 컨템포러리적인 것의 비중이 차이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 지난 3월 한국에서 워크샵이 있었죠?

네. 올 3월, 서울에서는 두 번의 무료 워크샵이 열렸어요. Y DANCE의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미를 갖춘 한국무용의 테크닉과 자유롭고 현대적인 움직임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음악의 장르에 따라 몸을 다방면으로 움직여보고 탐구함으로써 몸의(움직임)언어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참가했나요?

첫 번째는 전 연령이 참여 가능한 워크샵이었고, 두 번째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레벨에 상관없이 무용 전공자, 무용을 좋아하는 분들 모두 참가해 주셨습니다.

### 앞으로 활동계획은요?

올 한 해는 많은 나라를 투어 할 계획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페스티벌과 공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워크샵과 더불어 공연도 준비하고 있어요. 스크린댄스/댄스필름 활동도 좀 더 집중하여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 궁극적인 꿈/목표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전통문화는 단순히 중국과 일본 문화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K-pop으로 인해 이전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요. 둘째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생각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활동과 연구의 중심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제가 사회에 직접적 기여는 힘들지만 관객들이 사회에 대해 주체적/능동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을 통해 세계 각국의 관객들이 소통하고 통용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술을 만드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